

02-1 생명의 말씀

고난의 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랑하며 돌때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02-2 교회소식

만민성서아카데미 개강

4월 18일부터 10주간, 우리 교회 말씀무장과 일꾼 양성의 산실 만민성서아카데미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시작된다.

03 신앙상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공부에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그때부터는 공부에 수월해진다. 4가지 행동지침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좋은 방법을 소개한다.

04 간증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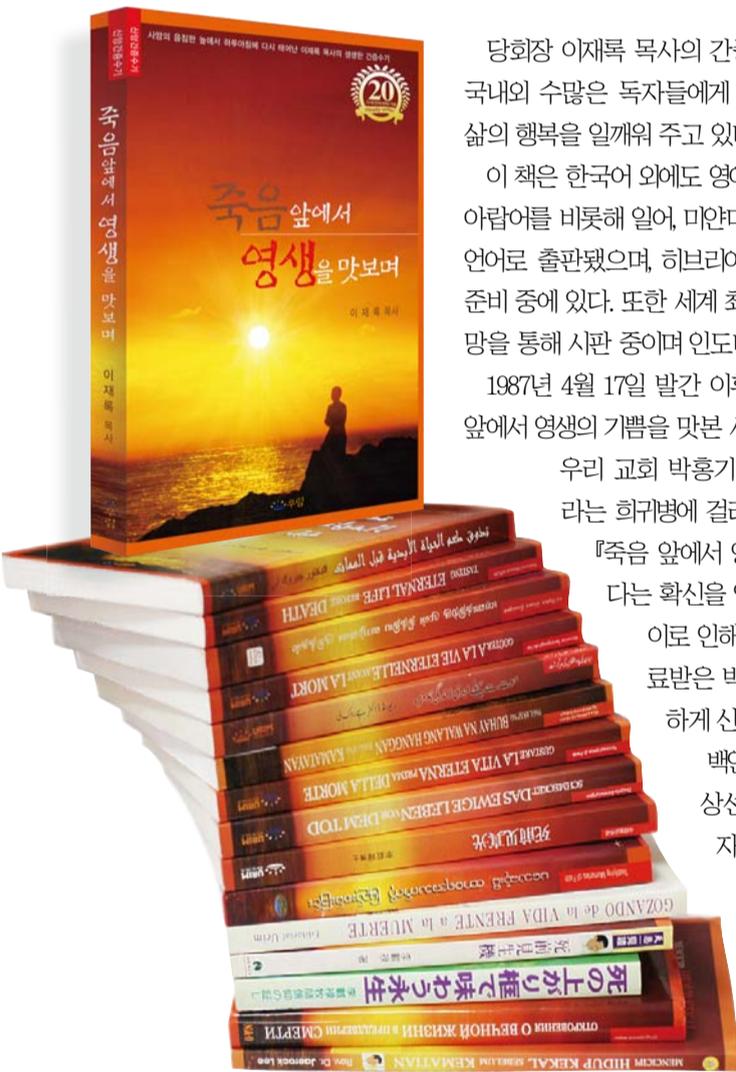
우연히 접한 '만민뉴스' 한 장이 목회 인생을 바꿔놓았다. 성경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던 중,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인도받은 2세대 14-2교구장 문신현 목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477호 2011년 4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스테디셀러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세계 곳곳에서 16개 언어로 출판, 무수한 응답과 개종의 역사 나타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가 국내외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변화된 삶의 행복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책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비롯해 일어, 미얀마어, 우르드어, 이탈리아어, 타밀어 등 16개 언어로 출판됐으며, 히브리어, 힌디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 등 유통망을 통해 시판 중이며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도 유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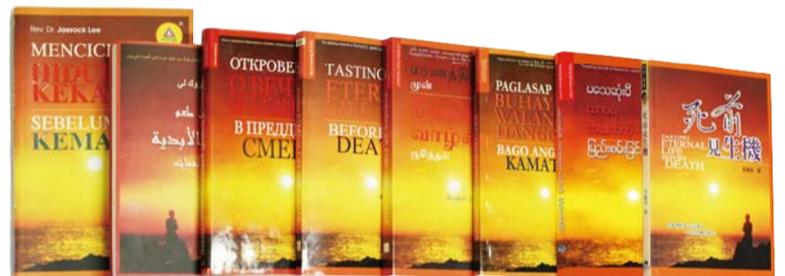
1987년 4월 17일 발간 이후, 이 책을 통해 주님께 인도받아 죽음 앞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무수히 많다.

우리 교회 박흥기 장로(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는 “공해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사투를 벌이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책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인도되어 공해병을 치료받은 박 장로는 지금 매우 건강하며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백인숙 권사(부산만민교회) 역시 심장판막증, 갑상선염, 방광염, 불면증 등 온갖 질병의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던 중, 이 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

이뿐 아니라 최금수 집사(남울산만민교회)는 눈물과 감동 속에 책을 읽고 나서 30년 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놀라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는 대만에서 중국어(번체)로, 인도에서 영어와 타밀어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이집트에서 아랍어로, 필리핀에서 타갈로그어로, 인도네시아에서 인니어로, 미얀마에서 미얀마어로 현지에서 번역, 발간됐으며 영어판과 아랍어판은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시판 중이다.

운 체험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책을 통해 무수한 치료와 응답의 역사는 물론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 화제다. 큰 아픔을 겪고 자살을 시도했던 인도의 페로즈 리 형제는 “책을 읽는 동안 변화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과 돌보심과 자비를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레바논의 안토인 서점, 버진 메가 스토어, 말릭스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이 책을 보급하고 있는 아나니아 카스티니안 목사는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는 많은 이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는 축복의 메신저다. 나 또한 이 책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 천국 소망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미얀마 과 흐랑 흐명 목사는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문판을 읽고 은혜받아 모국어인 미얀마어로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책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책자로 각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은혜받은 독자들이 번역자로, 보급자로 나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의 감동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수건 집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행 19:11-12). 이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주의 종 및 일꾼들이 기도해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담임 정명호 목사(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의 인도로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정 목사의 기도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청년의 눈에 빛이 들어와 보기 시작했고, 소아마비로 팔다리가 뒤틀린 남자 아이가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지고 팔다리가 풀려 잘 걷게 됐다.

이 외에도 간암, 위암, 허리 디스크, 고혈압, 심장병

등을 치료받아 참석한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됐다.

또한 인도델리선교센터 담임 김상휘 목사는 지난 4월 3일과 4일, 복인도 사하란푸르 교회, 루르키 교회, 데라둔 교회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이를 통해 잘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당뇨병이 치유되고, 갖가지 통증이 사라지는 등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특히 셔리로보 성도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22년 된 편두통이 사라졌다”며 기뻐했다.

한편, 네팔만민선교센터 담임 이해천 목사는 지난 14일 헤도우리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으며, 몽골만민교회에서도 담임 발저리 선교사의 인도로 지난달 26일 손수건 집회가 열려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고난의 주, 부활의 주께 감사와 영광을!

2011 부활절 전야 행사
주님 가신 길
(갈릴리 바닷가)
일시 2011. 4. 22 금요일야 2부 장소 만민중앙교회 본당